

\$



## ○ 요소 국제시장 전망

요소 국제시황은 “ 가격상승이 멈추고 보합 상태의 수준에서 유지될 것이다 ”라고 관련업체 소식통은 말하고 있다.

수요의 기반이 탄탄한 반면 공급측의 공장 트러블이 있어 구쏘련 등은 암모니아 시황의 가격상승 때문에 요소를 제조하지 못하고 있고, 암모니아를 직접 공급하는 쪽으로 움직이고 있으며 수급 관계가 비교적 타이트한 것으로 보인다.

요소의 국제시황은 북반구가 수요의 시즌으로 접어들기 때문에 올 봄 이후로 충체적으로 최저 가격에서 수십달러 상승하였으나 그 이후 조금씩 하락하였다.

인도네시아 제품 등은 위 상황을 이유로 다시 시세가 오를 듯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인도네시아 제품으로는 베트남으로의 수출이 피크를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공장 트러블 때문에 C&F 제품으로 110\$ 선에서 가격을 유지하는 강세를 보이고 있고, 구 쏘련 제품은 암모니아 시황의 급등으로 요소의 생산보다 암모니아 자체로의 판매로 요소의 판매부진을 해소하고 있다.

또한 중남미로의 수출도 양호하게 움직이며, 중동제품 등도 하락 후보다 강세로 반전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 관계자는 현재 요소의 시황에 관하여 “ 요즘 1-2개월간은 일단 상승을 멈추고 보합수준으로 유지할 전망 ”이라고 관측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고, 최저가격에서 상승으로 향한 이 시황은 다소의 상하변동을 반복하면서도 당분간 약세를 포함한 보합이 유지되리라고 보고 있다.

이 관계자에 의하면 최근의 요소의 국제가격은 FOB 베이스로 중동제품이 96-97\$, 인도네시아 제품이 100-101\$, 구쏘련 제품(흑해선적)이 87-88\$의 수준에서 유지될 것으로 보고 있다.

< 일본 무역일일통신 2000. 5. 15 비료판 >

\$

## ○ 방글라데시의 비료 현황

Kharnaphuli Fertilizer Co.(KAFCO)는 국제금융회사의 건의에 따라 2개월간 계획된 구조 개혁을 단행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 회사는 Chittagong에 있는 단지에서 년산 500,000톤의 암모니아와 년산 575,000톤의 요소를 생산하고 있으며, 1995년부터 조업 개시를 시작한 이래로 부채 부담으로 막심한 타격을 받아왔다. 국제시장에서의 요소 가격의 붕괴는 이 회사에 더욱더 타격을 주었으며 공장에서의 기술문제와 천연가스의 공급 부족이 원인이 되어 생산불능이라는 결과를 가져왔다.

KAFCO는 방글라데시에서 가장 큰 외국투자업체이며 이 회사의 소유권은 방글라데시 화학산업회사(BCIC)를 통한 방글라데시 정부의 43.4%의 지분과 KAFCO의 일본 투자회사(30.3%), 덴마크의 Haldor Topsøe(14.9%), 네덜란드의 Stamicarbon BV(1/6%)와 수개의 해외개발대행사가 분할소유하고 있다.

초기의 생산 난점들이 KAFCO를 일본의 Chiyoda Corp를 포함한 몇몇 계약상의 공급회사들과의 분쟁으로 이끌었으나, 이 회사는 유망하기 때문에 문제들이 곧 해결될 것이다.

그동안 KAFCO는 1월중순에 turnaround(자산가치가 높고 현금 흐름이 풍부한데도 경영자의 능력이나 자체 구조가 취약해 주가가 떨어진 기업을 인수한 뒤 경영을 호전시켜 주가를 올린 다음에 매각처분하는 방법)을 수행할 계획이었다. 그리고 이 turnaround가 끝날때까지 소요는 약 1개월이 될 것이다.

BCIC는 암모니아 330,000톤/년과 그레뉼 요소 561,000톤/년의 합작회사를 개발하는 계획을 진행하라는 정부의 승인을 받고 있다.

미국의 ABCD가 계획중인 합작회사 Shahjala Fertilizer Factory는 동북 방글라데시의 Sylhet Fechuganj주에 위치한다. ABCD는 카터 개발회사, 콜도라도와 뉴저지주의 세계시장 전략을 포함한 미국회사들의 컨소시엄이다.

이 컨소시엄은 시초에 암시적 건의는 약 55천만달러의 투자와 60 : 40의 부채/신주 비율이었다.

BCIC는 ABCD에게 이 계획의 실행 가능성에 관한 연구와 ABCD의 재정계획에 관한 완

전한 세부사항을 제공할 것을 요청하였다.

양측은 합작회사에 대한 합의각서에 서명하기로 되어 있었으며 ABCD는 6개월 이내에 가능성 연구의 결과와 재정적 종합계획서를 제출하기로 하였다.

BCIC는 또한 Chittagong에 건설하도록 전의된 2개월의 DAP 공장을 위한 상업적 그리고 재정적 제공을 검토 중에 있다.

이들 공장은 각각 일 800톤의 DAP를 생산할 것이며 이 공장들은 각각 10,000톤 용량의 인산 저장탱크 3개를 병설할 것이며, 또한 30,000톤의 벌크 DAP와 10,000톤의 포장 DAP를 저장할 수 있다.

각 공장의 건설 추산액은 6천만달러이고, 중국의 동종 업체와 일본의 Toyo Engineering Co(TEC)가 이 공사의 수주자로 선정되었다. 중국의 동종 회사는 DAP I 시설을 건설할 것이며, TEC는 DAP II 공사를 맡을 것이다.

Bangladesh Fertilizer & Agro Chemicals Ltd.(BFACL)은 정부의 승인에 따라 남 방글라데시의 Khulna 지방의 Phultola에 자체의 과석 공장 건설을 계획하고 있다.

Indo-Bangla의 년산 148,500톤의 공장 건설은 1998년 10월에 시작되었다. 과석 동업자들은 인도(30%)의 Swaraj Import & Export Private Ltd, BCIC(20%), 방글라데시 투자 주식회사(15%), Sadharan Bima Corp(10%), 방글라데시 Shilpa Rin Sangstha(6%에 328만달러의 신주의 19%의 공모주식 방행)이다.

이 계획은 원래 입상 과석의 생산을 계획하였으나 후에 분상 과석을 생산하도록 수정되었다. 과석 공장과 년산 70,000톤의 황산 시설의 총 건설비는 1997년의 가격으로 약 480 만달러로 추산되었다.

BFACL은 두 공장 시설 건설을 2000년 12월까지 완성할 목표로 기계류와 장비에 대한 국제입찰서를 발행할 계획이다.

< ASIAFAB Winter 2000 >

## ○ 인도네시아의 합병

Aceh에서의 정치적 불안이 인도네시아 정부로 하여금 Asean Aceh Fertilizer(AAF)

//

와 PTPupuk Iskandar Muda(PIM)의 계획된 합병과 민영화의 지연을 강요해 왔다.

이 합병은 더 좋은 경제적 규모를 통하여 이 두회사의 운영의 효율을 끌어올리려는 노력의 일부를 정착되어왔다. 이 두 회사는 현재 PIM 회사에 건설중인 년산 570,000톤의 요소 시설을 포함하여 년산 200만톤의 공동 생산능력을 가지고 있다.

AAF는 현재 인도네시아 정부가 60%를 소유하고 있으며 나머지는 태국(13%), 필리핀(13%), 말레이지아(13%) 그리고 싱가풀(1%)이 분할 소유하고 있다.

PIM은 인도네시아 정부가 소유하고 있다. 또한 사유화로 격화된 것은 PT Pupuk Sriwidjaja(PUSRI)와 PT Pupuk Kalimantan Timur(Kaltim) 이다.

Kaltim Pasifik Amoniak(KPA)는 년산 660,000톤의 암모니아 공장을 Bontang에 건설을 완료하였다고 한다. 그리고 KPA로 하여금 실험생산을 가능하게 하였다. 만일에 모든 것이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상업적 생산은 2000년 3월에 시작하게 될 것이다.

Kaltim은 토지를 임대하고 공장을 운영 유지하고 있으며 부대시설을 제공하고 Kaltim의 시설을 KPA에게 원가로 사용하게 하는 대가로 KPA는 년간 150,000톤의 암모니아를 Kaltim에게 공급하기로 Kaltim과 계약을 체결하였다.

Kaltim은 KPA의 위치에서 가까운 곳에 있는 Kaltim의 그래뉼 요소공장을 위하여 추가 암모니아의 공급을 교섭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나머지 생산량은 Tomen과 Mitsui를 통하여 베트남, 한국, 태국, 대만과 인도 등 접안국가에 수출할 것이다.

KPA는 Mitsui & Co(55%), Tomen Corp(25%)와 인도네시아의 개인회사인 Talang Gumbala Andhika(20%)의 합작회사이다.

< ASIAFAB Winter 2000 >

## ○ 말레이지아 암모니아 공장 완공

Petronas Ammonia Sdn Bhd는 동부 말레이지아의 Kerteh에 위치한 년산 450,000톤의 암모니아공장의 기계설치를 3월에 완료한 것으로 보인다. 그 다음에는 공장의 사전 위탁이 뒤따르고 사전 위탁의 경비는 25,000만달러로 추산된다. 계획대로 진행되면 상업생산은 7월말이나 8월초에 시작될 것이다.

생산하는 암모니아는 Petronas의 시장경로인 Mitco를 통하여 인접시장에 주로 수출하기로 되어 있다.

이 제품은 새로 건설되는 원액 상태로 터미널을 통하여 선적될 것이며, 이 터미널은 Petronas가 Kerteh에 건설 중이며 GATX 터미널과 Dialog Equity Sdn Bhd와 연결하여 건설중이다.

< ASIAFAB Winter 2000 >

## ○ 태국, NFC 채무 구제

태국의 빚더미를 안고 있는 NFC는 태국의 석유당국(PTT)에 잠못 이루는 하룻밤을 갖게 했다. 태국 석유당국(PTT)은 금년 후반에 NFC에 750백만 바트(2000만달러)를 투입할 것으로 보인다.

지방 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NFC의 채권자들은 NFC의 주주들이 더욱더 자금을 조달하여 회사의 자금을 부양하기로 약정한 바 있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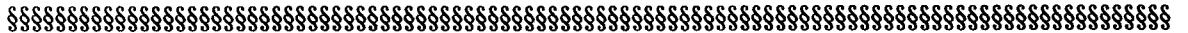
PTT가 총 자산의 12%를 소유하고 NFC의 다른 주주들은 Paedeng Industry Co Ltd가 24.4%를 태국 Finance Corp(15%), 정부저축은행(10%), Crown Property Bureau(10%) , National Petrochemical Corp Ltd(5%)이며, 개인 주주들이 나머지 23.6%의 NFC의 소유권을 차지하고 있다.

NFC의 채무는 총액 약 130억 바트(3,480만달러)로 추산되며 주로 Krung Thai Bank, Siam City Bank 그리고 Industrial Finance Corp(IFC)에 빚을 지고 있다.

그 동안 NFC는 NFC의 유통망을 통하여 할인가격으로 비료를 BAAC를 통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방책은 쌀을 생산하는 태국 농민에게 혜택을 줄 것으로 보이는데, 태국 농민은 세계시장 가격의 하락으로 심각한 타격을 받아왔다.

NFC는 보편적인 시장가격 이하인 톤당 최고 400 바트(톤당 10.25달러)로 비료를 판매함으로써 2차 쌀 생산 시기 중에 복합비료 약 50,000톤을 판매하기를 바라고 있으며, 2000년에 200,000톤, 2001년에 300,000톤을 판매할 목표를 세웠다.

Map Ta Phut에 있는 NFC의 년산 100만톤의 복합비료 공장도 가동율 40%를 유지하고



있으며, BAAC와의 이 새로운 계약은 이 공장으로 하여금 2001년까지 완전 가동율로 생산을 달성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 ASIAFAB Winter 2000 >

♣ 어리석은 자는 구치스러운 일을 할 때에도 그것이 언제나 그의 의지라고 칠조한다.

< 베나드 쇼 >